

“벅차오르는 간절함·희망 담고 싶었어요”

가수 이은미 3년만에 신곡 ‘알바트로스’ 발표 “지난해 황폐한 심리 상태로 이제서야 녹음” 야권 지지...정치 소신 밝히는 것 부담 없어



‘맨발의 디바’로 불리는 가수 이은미는 싱글 ‘알바트로스’를 녹음하며 가슴이 끓어오르는 벅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해 억눌려 있고 폭발할 것 같은 압박감 속에 있다”며 “큰 고비는 넘겼지만 완벽하게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 노래로 가슴에 인 울분이 조금이나마 수그러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3년 만의 신곡 ‘알바트로스’ 발표를 그는 26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정동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내내 마음 졸이고 답답함을 느낀 사람들과 이 곡으로 일종의 해소를 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1989년 신촌블루스 객원 가수로 데뷔한 그가 싱글을 낸 건 처음이다. ‘알바트로스’는 그의 대표곡 ‘애인있어요’와 ‘해어지는 중입니다’, ‘결혼 안하길 잘했지’, ‘낙타’ 등을 함께 작업한 작곡가 윤일상과 작사가 최은하가 다시 풍채 작업한 노래다.

그러나 기존의 연가와와는 감정이 다르다. 윤일상은 “그간 이은미 씨에게 그리움, 사랑에 대한 아픔 등 연가를 주제로 한 곡을 썼다”며 “하지만 다들 살기가 힘들어서 연가를 주제로 하니 감정이입이 안되더라. 이번 곡에선 벅차오르는 간절함, 희망을 담고 싶었다”고 소개했다.

이런 간담회 자리가 처음이라는 작사가 최은하는 보들레르의 시집 ‘악의 꽃’에 수록된 동명시를 좋아해 연젠가 알바트로스를 소재로 가사를 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만났다고 했다.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가사를 떠올렸어요. 그런데 이은미 씨에게 가사를 보내줬더니 여행 중 바다 위에서 받아줬다고 했죠. 각자의 위치에서 다른 삶을 살지만 무언가 연결돼 있다는 따뜻한 기분을 느꼈어요.”(최은하)

이은미는 작년 6월 스쿠버다이빙을 하러 인도네시아 코모도 섬에 있을 때 가사를 받고서 벅차오름을 느꼈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1년 전 윤일상에게 이 곡을 받았지만 지난해 지치고 고갈된 황폐한 심리 상태에서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서로 결핍 충전제가 없는 사회에서 버티는 게 어려운 일이다”며 “대취 30년을 앞두고 목소리 기가 약해진 사람이 가지는 나이 들에 대한 성찰도 힘들었다. 하지만 작년 10월 투어를 시작하고 연말 주말마다 광화문에 나오면서 나도 모르는 삶의 공감대가 확 느껴졌다. 이달 이제는 노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윤일상 씨에게 말했고 1주일 만에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은미는 보컬리스트로서 윤일상과 만난 게 큰 행운이라며 “‘알바트로스’는 전체적인 멜로디의 흐름이 분명 가슴을 끓어오르게 하는 선율로 돼 있다”며 뜨겁게 몽클함이 느껴지는 한 소절을 불러줬다.

“파도 몰아치는 바다로 그저 내 날개를 펼치고 있네/ 바람아 더 불어라 더 거칠수록 나는 더 뜨겁게 오~”(‘알바트로스’ 중)

이 곡의 감정을 잘 전달하기 위해 그는 “테크닉으로 포장하고 싶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내 소리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노랫말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음악에서도 시대의 정서를 고려한 그는 대표적인 폴리싱어(political+singer-정치적 의견 개진에 적극적인 가수)로 불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지지자이며, 지난 연말에는 광화문광장 7차 촛불집회 무대에 올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곡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스스로 오랜 야권 지지자라는 그는 정치, 사회적인 성향을 밝히는 것에 큰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주위에서 만류하는 이유는 실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등 암암리에 그런 압력이 있고 존재한다는 게 드러났으니까요. 그런데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성향을 밝혔을 때는 말과 행동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해요. 제가 하는 여러 사회적, 정치적인 행위나 말은 책임질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늘 더 많은 부분을 함께 하지 못해 솔직히 죄책감을 더는 수준이죠.”

그는 이어 “대한민국에서 음악가로 30년간 살아 가면서 받은 놀라운 사랑을 나름대로 잘 사용해보고 싶은 것”이라며 “여러분과 같은 이유로 촛불을 들었고 그 무대에 섰다. 대한민국이 더는 망가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며 ‘이게 나라’란 걸 보여줬으면 한다. 그 빛을 확인하는 상황이 오면 내 목소리로 ‘아름은 빛을 이길 수 없다’란 노래를 기쁘게 부르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문화예술인으로서의 바람을 묻자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것은 돈 없고 힘없고 ‘빚’ 없는 게 죄가 돼서”라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회로 기본 틀을 갖춘다면 음악가에게도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했다.

최근 가수 전인권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를 지지해 못매를 맞았다는 말이 나오자 “본인의 정치적인 소신을 밝힌 것뿐”이라며 “모든 사람이 전인권 씨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지 않듯이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전인권 ‘걱정말아요 그대’ 표절 논란 “표절 걱정하지 말아요”

독일 곡 들으니 비슷한 부분 있지만 “아니다” 거듭 강조

가수 전인권의 노래 ‘걱정말아요 그대’가 46년 된 독일 곡과 유사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한 커뮤니티에는 ‘걱정말아요 그대’가 1970년대 독일 필른에서 활동한 그룹 블랙 피스(Black Pooss)의 ‘드링크 도흐 아이네 메트’(Drink doch eine met)과 비슷하다는 글과 블랙 피스의 공연 영상이 올라왔다.

누리꾼은 특히 ‘걱정말아요 그대’의 후렴구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부분의 멜로디 등이 비슷하게 들린다고 지적했다.

음악 전문가들은 코드 진행의 유사성만으로 표절을 규정짓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비슷하게 들리는 이유를 꼽았다. 복수의 유명 작곡가들은 “마디가 시작할 때마다의 핵심 멜로디가 비슷하다는 지적인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필른 지역 방언으로 ‘한편 마저 봐’란 뜻인 ‘드링크 도흐 아이네 메트’는 블랙 피스(필른 방언으로 ‘맨발’이라는 뜻)가 1971년 독일어로 녹음했으며 1972년 발표해 히트했다.

전인권의 자작곡인 ‘걱정말아요 그대’는 2004년 발표한 4집의 타이틀 곡으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삽입되며 사랑받았고 촛불집회에서도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전인권은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전인권은 이날 “논란이 불거진 뒤 독일 밴드의 노래를 들어봤는데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난 표절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밴드의 가수가 나랑 좀 비슷한 것도 같은데 나는 표절을 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윤정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다큐에세이, 여기 이 사람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아침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스쿨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 <문재인 후보>	00 일일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재)	00 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12	00 KBS 뉴스 12	55 감성내일 하루 시즌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 (자체발광 오피스)(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형설계
1	00 제19대 대선 후보자 경력방송 05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5 사람과 사람들(재)	00 이웃집 찰스(재)	30 주말특별기획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재)	55 닥터 365
2	45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재)	25 드림 주니어 스페셜 55 내일은 언제나 푸름	00 뉴스브리핑
3	05 명견만리(재)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MBC 일일드라마 (아름다운 여자)(재)	
4	00 4시 뉴스잡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MBC 뉴스M	00 토크콘서트 화통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 스페셜	00 터닝메카드 W 2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 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밤상	50 일일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닥터 365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05 제19대 대선 방송연설 (문재인 후보)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속보이뉴스TV 인사이드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제19대 대선 방송연설 (국민의당 안철수후보)
9	00 KBS 뉴스9		05 제19대 대통령선거 방송연설 (더불어민주당)	0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황금주머니)
10	00 KBS 스페셜 (발명왕사 2부작)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	00 수목드라마 (자체발광 오피스)	00 드라마 스페셜 (사인당, 빛의 일기)
11	00 KBS 뉴스라인 40 목요기획 <덕의 법상은 안전합니까?>	10 해피 투게더	10 특집다큐 (하얀내비, 가수 김청호)	10 자기가 - 백년손님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빛날 스페셜 50 MBC 뉴스 24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05:30 통일 미라보기 <빛동네 군인 이야기>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월드 (스마일 부부의 하하 호호 인생) 08:00 덩동덩 유치원 1~2 08:30 똑딱맨 08:45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엄마 깨우기(재) 09:30 플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아스파라거스 키시와 딸기젤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스마일 부부의 하하 호호 인생) 12:40 지식체널e 12:45 명의(재) 13:40 다큐영화 - 김 위의 인생 (자오축, 여인의 길) 14:30 호기심나라 오키도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키 탐험대 15:20 마사와 곰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소(재) 16:30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재) 16:45 덩동덩 유치원 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재) 17:30 로보가 폴리 17:45 똑딱맨(재)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4 19:00 놀자고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50 세계테마기행 <짜라니 마다카스카르 4부 말라카시 일성으로의 초대> 21:30 한국기행 <꽃 피러 간다-우리들의 봄날> 21:50 리얼극장-행복 <30년간 의절한 형제, 가수 제임스킨>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금쪽같은 내 새끼랑 <가수 김소희와 밀양 할머니의 오감만족 나기사기 여행> 24:05 지식체널e 24:10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7일(음 4월 2일 甲申)

子 48년생 승산이 있는 게임이나 주저하지 말고 진행하는 것이 생 산적이다. 60년생 방심한다면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다. 72년생 짐작으로 판단한다면 큰 일 나겠다. 84년생 예견된다면 확실히 회피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15, 36	午 42년생 다층적으로 접근하라. 54년생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것에 신경을 써야겠다. 66년생 상승의 운세가 다가오고 있느 니라. 78년생 실패적 관점에서 기존 삼아야 할 것이다. 90년생 대응소이나니 일괄 처리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77, 71
丑 49년생 관련 단다면 점점 부담스러운 일들이 속출할 것이니 즉 시 철회하는 것이 낫다. 61년생 바라던 것이 생길 수도 있으니 기 대해도 된다. 73년생 다층적인 구조이다. 85년생 생각만으로는 무의미하니 직접 실행하라. 행운의 숫자 : 54, 41	未 43년생 유명무실한 것부터 정리하라. 55년생 함께할 자리에 빠 저서는 아니 되겠다. 67년생 의심스럽다면 차치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79년생 무의식중에 빛나갈 수도 있으니라. 91년생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니 확실히 대비하라. 행운의 숫자 : 43, 32
寅 50년생 서두르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되니 급할수록 돌아가라. 62년생 전혀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74년생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실행해야 한다. 86년생 꿈 도 꾸지 않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39, 17	申 44년생 시기가 아니라 완성도의 문제가 될 것이다. 56년생 불편 함이 겹치는 이중고의 상태이다. 68년생 속단은 금물이니 차분 하게 생각할 일이다. 80년생 사소한 것에 발목이 잡힌다면 큰 걸 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65, 74
卯 51년생 간절히 기대하였던 바의 예상이 엉뚱한 곳으로 빛나가 버릴 수도 있는 동세이다. 63년생 강한 확신으로 과단성 있게 추 진하자. 75년생 임추의 여지가 없겠다. 87년생 완급의 조절이 절 실히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12, 52	酉 45년생 강인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57년생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정진하는 것이 좋다. 69 년생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리라. 81년생 녹슬지 않 도록 늘 고고되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95, 03
辰 52년생 남 보기만 좋을 뿐이지 진실로 살펴보면 내면의 실속은 없다. 64년생 깊이 있는 인식의 계기가 될 것이다. 76년생 시행 착오에 따른 손실이 지대할 것이다. 88년생 비바람이 치고 있으 니 활동을 자제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23, 35	戌 46년생 가까이에 노출되어 있으니 금방 눈에 띄리라. 58년생 신 용을 잃은 이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법이다. 70년생 일급 색 깔의 무지개가 걸려 있다. 82년생 생산적인 국면으로의 전환과 운운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96, 45
巳 53년생 원점에서 재검토해 봐야겠다. 65년생 속명적으로 시비 를 가려야 할 처지에 놓인다. 77년생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 머뭇 거리지 말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89년생 상대적으로 비교 되면서 진기가 드러나리라. 행운의 숫자 : 89, 07	亥 47년생 이익은 생기기만 소량이다. 59년생 열린 마음으로 대한 다면 그 동안에 미흡했던 점이 해소될 것이다. 71년생 기본적인 이치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83년생 자신의 뜻이 관철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행운의 숫자 : 26, 5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